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는 고(故) 안춘근 교수가 수집했던 세책(貰冊) 구활자본 고소설¹⁾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은 초판(初版) 구활자본 고소설로, 세책으로 유통된 것들인데, 이는 구활자본이 등장하자마자 세책점에서 대본(貸本)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동안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에 이르지만, 방각본과 필사본을 대역해주던 세책점에서 이를 대본(貸本)으로 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책과 구활자본 고소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책들은 이러한 당시 소설의 유통과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폴을 드러내고 있는 세책에 대한 연구에도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들 자료의 소개가 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확장된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 한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세책(貰冊)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책점에서 빌려주던 책이다. 세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윤석·大谷三繁·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해안, 2003, 참조.

2.

현재 확인이 가능한 세책본은 모두 11종으로,²⁾ 이 세책본의 일부는 그의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지만,³⁾ 대다수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먼저 세책 11종의 서지사항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고, 나머지 관련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번호	제명	청구기호	서지사항	판권지 사항
1	공부자언행록	C2 73	1권 표제(表題): 孔夫子言行錄 내제(內題): 공부자언행록 매면 10행, 전체 67면.	大正2(1913), 조선서관
2	사씨남정기	D7B 51	1권(상하 합본) ○상권(上卷) 표제(表題): 謝氏南征記上下 내제(內題): 사씨남정기 매면 16행, 전체109면. ○하권(下卷) 표제(表題): 謝氏南征記上下 내제(內題): 사씨남정기 매면 16행(行), 전체109면.	大正2(1913), 영풍서관
3	언문서유기	D7B 57	1권(결질(缺帙)) 표제(表題): 諺漢文 西遊記 後集 第一卷 (心猿遭火賊) 내제(內題): 언한문 서유기 후집 일권 목차(目次): 36-37회 매면 13행(行), 전체108면.	大正8(1919), 조선서관

2) 안춘근 교수의 메모를 보면 「태서신사」, 「오백년기담」, 「죄인」, 「적덕문」 등을 세책이라 적어 놓았는데, 이 자료는 찾지 못했다.

3) 안춘근, 「한국 세책업 변천고」, 『서지학』 6, 1974.

4	소대성전	D7B 4B	1권 표제(表題): 蘇大成傳 卷一 내제(內題): 신번(新飜) 쇼대성전 매면 9행(行), 전체 72면.	大正3(1914), 동미서시
5	옥린몽	D7B 43	1권(상하 합본) ○상권(上卷) 표제(表題): 고쇼설 옥린몽 내제(內題): 옥린몽 상편 목차(目次): 1-26회 매면 18행(行), 전체 160면. ○하권(下卷) 표제(表題): 고쇼설 옥린몽 내제(內題): 옥린몽하편 매면 18행(行), 전체 150면.	大正7(1918), 회동서관
6	월봉산기 上	D7B 52	1권 표제(表題): 월봉산기(月峰山記)상(上) 내제(內題): 월봉산기 상 목차(目次): 1-11회 매면 17행(行), 전체 94면.	大正5(1916), 조선서관
7	월봉산기 下	D7B 52A	1권 표제(表題): 월봉산기(月峰山記)하(下) 내제(內題): 월봉산기 하 목차(目次): 12-21회 매면 17행(行), 전체 97면.	大正5(1916), 조선서관
8	장한절효기	D7B 53	1권 표제(表題): 張韓節孝記 장한절효기 내제(內題): 당한절효기 단 매면 17행(行), 전체 74면.	大正8(1919), 신명서림
9	재봉춘	D7B 47	1권 표제(表題): 지봉춘 내제(內題): 가정소설 지봉춘 매면 17행(行), 전체 123면.	大正8(1919), 박문서관

10	팔장사전	D7B 45	1권 표제(表題): 八壯士傳 내제(內題): 八壯士傳 팔장사전 상편 목차(目次): 1-17회 매면 17행(行), 전체 104면.	大正6(1917), 신구서림
11	팔장사전		1권 표제(表題): 八壯士傳 내제(內題): 八壯士傳 팔장사전 하권 목차(目次): 18-38회 매면 17행(行), 전체 113면.	大正6(1917), 신구서림

<표>에서 제시한 11종은 책의 형태나 책 속의 남은 기록을 볼 때, 모두 세책이다. 각 세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을 <표>의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부자언행록>: 표지가 두껍게 장정(裝幀)되어 세책임을 보여 준다. 표지에 세책점의 상호(商號)는 안 보이고 세책점의 위치만 적혀 있다. 이 책을 대여해주던 세책점은 '중부(中部) 이동(泥洞) 이층옥(二層屋)'이다. 이동(泥洞)은 현재 종로구에 있는 운니동(雲泥洞)이며, 이층옥이란 것으로 보아 세책점은 2층에 있었거나, 2층으로 된 세책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사씨남정기>: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1-16쪽은 찢겨져 나간 상태로, 17쪽부터 남아있다. 책에 독자의 낙서가 남아있다.
- (3) <언문서유기>: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화신세책소(華信貰冊所)'란 상호(商號)가 적혀 있다. 화신세책소는 옛 화신백화점 부근에 있었던 세책점으로 보이며, 현재 위치는 을지로 한국은행 본점 부근으로 추정된다.

- (4) <소대성전>: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광성호(廣盛號)'란 상호가 적혀 있다. 그리고 세책점에서 얼마의 대여료(貸與料)를 받고 책을 빌려 주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세책료는 '冊貫金 每日 壹錢'으로, 매일 1전(錢)씩 지불했음을 알 수 있다.
- (5) <옥린몽>: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공일(共一)'이라 써 있고, '경신(庚申) 십이월(十二月) 십구일(十九日)'이라고 적혀 있다. 세책점 주인으로 보이는 '主 宋英末'이란 기록이 있다.
- (6) <월봉산기>: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예지동(禮智洞) 세책옥(貫冊屋)'이란 상호(商號)가 적혀 있다. 예지동은 현재 종로구 예지동으로, 이 지역에 세책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지 뒷면에 '칙장을 흐리거나 상하면 정가금이 십십전이요'라고 적혀 있다.
- (7) <장한절효기>: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세책점의 위치와 세책 주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성시외(京城市外) 동막상리(東幕上里) 곽주사(郭主事)'로 되어 있다. 책 속에 책 주인의 이름인 곽문근(郭文根)이란 기록이 있다. 뒤표지에 책을 빌려갈 때의 금액도 적고 있는데, '일야(一夜)에 일전식(一錢式)'이라 되어 있다. 동막상리는 현재 마포 일대로, 이 지역에 세책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8) <재봉춘>: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표지에 '화신 세책소(華信貫冊所)'란 상호가 적혀 있다. 화신세책소는 앞서 살펴본 <서유기>의 대여점이기도 하다.
- (9) <팔장사전>: 역시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다. 하권 표지에 '광명 세책소(廣明貫冊所)'란 상호가 적혀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책점의 대본(貸本)이 1913에서 1919년에 발행된 '초판(初版)'

구활자본 고소설이라는 점이다. 초판인 것으로 보아서, 구활자본 고소설이 등장하자마자 세책점에서는 이를 대본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책점이 '화신 세책소'·'예지동 세책옥'·'광명 세책소'와 같이 각각 상호(商號)를 쓴 것이 눈에 띄는데, 이전 시기까지 세책점은 세책에 단순히 '동명(洞名)'을 기재하는데 그쳤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상호를 쓰고 영업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 또한 "하룻밤에 일전(一錢)"이라는 기록을 통해 대여료(貸與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구활자본 고소설들의 정가(正價)가 25전-50전(錢)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빌려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책점은 종로·마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세책점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영업방식은 모리스쿠랑과 최남선이 언급했던 1890년대에서 1910년대 존재하던 세책점의 모습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통해 1910년대 이후의 세책점에 대한 정보, 곧 구활자본을 대본(貸本)으로 했다는 점과 세책점의 소재나 영업방식 등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20세기 초 변화된 출판환경과 독자의 요구에 추이(推移)된 고소설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자료라 생각된다. 앞서 밝혔듯 구체적인 논의는 별지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료: 『공부자언행록』, 『사씨남정기』 외



<그림1>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소설 『재봉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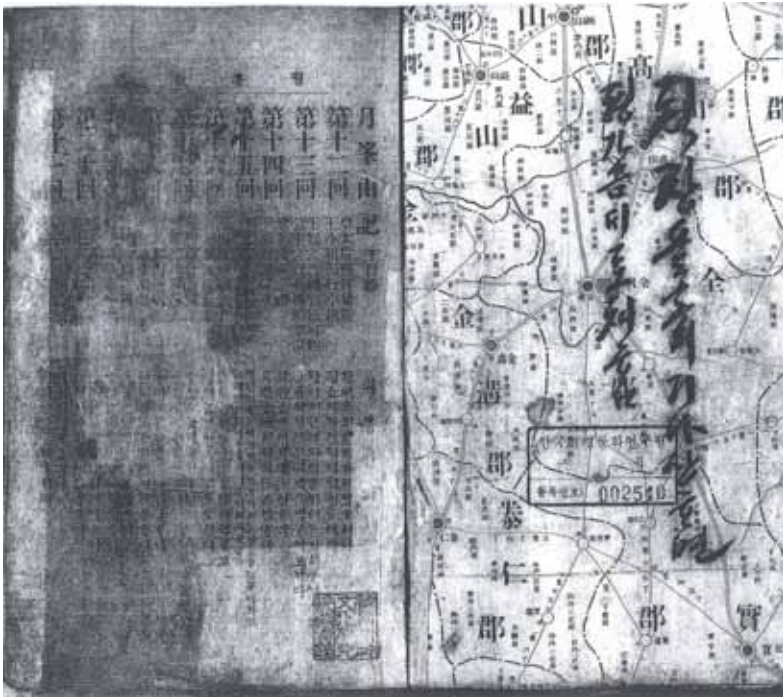


<그림2>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소설 『팔장사전』 표지



<그림3>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공부자연행록』 표지

자 료: 『공부자연행록』, 『사시남정기』 외 369



<그림4>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소설 『월봉기』 표지



<그림5>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소설 『소대성전』 표지



<그림6> 장서각 소장 세책 구활자본 소설 『사씨남정기』 표지

K C I